

청년이여, 독수리의 영성으로 비상하라

제27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성황리 마쳐



남가주청년연합집회 HYM에 참석한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남가주 교회 청년 공동체들의 연합과 각성을 통한 영성 부흥을 위해 기획된 '제27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HYM, 대표 더글라스 김)'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지역 청년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금이야 바로 그때(Now is the Time)'라는 주제 아래 유준형 목사(크로스로드교회)가 이끈 연합찬양팀은 집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집회 설교를 전한 이승종 목사(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 담임, 여개동무사역원 대표)는 간증과 유머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목사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

은 배우자를 만나 개인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빠져버린 성공은 사실 알고 보면 실패"라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새벽 이슬처럼 정결한 북미주 청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독수리"라며 "성경 속에서 삶과 가치관을 찾고 민족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각자 처한 현장에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삶을 던지는 용기있는 크리스천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들은 "뜨거운 찬양과 특히 설교자의 솔직함과 순

수함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며 "이 청년연합집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사야6:8의 'Here am I. Send Me'와 'Young Christian', 'Movement'에서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어진 HYM은 지난 1999년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 한 차례씩 LA동부와 오크랜드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활발히 열어 왔다. 이번 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pages/HYM/1557725577832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8회 집회는 2013년 4월 중 열리게 된다.

정하나 기자

9월 총회 기점으로 교계 연합운동

다시 "지각변동"

경쟁 통한 '솔림현상' 일어나거나, '3자 구도' 고착

9월 한국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에 대한 가입 혹은 탈퇴 결의가 잇따라 교계 연합사업에 또 한 번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은 한기총 창립을 주도한 교단이자 대교단인 예장 통합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교연 가입을 승인한 것이다.

이를 전후해 예장 대신, 백석, 한영, 합동선목 등도 한교연 가입을 승인했다. 백석의 경우 '한기총과 결별'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고, 대신의 경우 한기총을 탈퇴하지는 않고 행정보류를 유지했다.

합심은 한기총을 탈퇴했으나 한교연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한교연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임원과 총무가 심사하여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한기총에는 행정보류를 유지하고 한교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나사렛성결회 등은 총회 차원의 결의는 없었으나 아직 한기총을 탈퇴하지는 않은 채 한교연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고신은 한교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직전 총회장 정근두 목사에 대해 "총회의 허락과 파송을 받지 않은 행위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기총에 대해서는 "탈퇴하기보다는 참여 속에 거룩한 연합기관으로 세워나가자"는

취지로 탈퇴를 유보하고 이후 대책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은 계속 한기총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대부분의 한기총 소속 교단들이 아직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기총에 행정보류 중인 기하성 여의도측은 지난 18일 임원회의를 열어 '한기총 행정보류 해제'안건을 심의하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결의했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최근 이영훈 총회장이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한기총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교단의 행정보류 결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안을 오는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단 내에 한기총 탈퇴 여론도 있는 데다가, 이번에 예장 통합 등의 탈퇴 소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결과에 대해, 한기총은 몇몇 교단들의 이탈에 동요가 없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고, 한교연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향후 한기총과 한교연간의 경쟁을 통해 어느 한쪽이 도태되어 다른 한쪽으로 솔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연합기관이 한기총-한교연-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개 구도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계 연합운동가들은 WCC 사태로 예장 통합-통합이 나뉘는 등 교계가 분열된 이래, 한기총 창립으로 인해 간신히 시작됐던 연합운동이 다시금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관련기사 19면
 류재광 기자

나성영락교회, 권혁빈 담임목사로 결정... 본인 수락만 남겨놔

미주 최대의 한인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가 권혁빈 목사(43, 일바인운누리교회)를 4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나성영락교회는 23일 주일예배 시간에 "최근 당회를 연 자리에서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단독후보 권혁빈 목사를 만장일치로 청빙을 가결했다"면서 "인품과 성품이 좋고 영성이 깊어 젊은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청빙 절차는 제직회의 최종 청빙 절차를 거친 후 본인 청빙 수락을 남겨두고 있다.

권 목사는 현재 일바인운누리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 2012년 1월에 담임목사로 공식 부임했다.

권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영국 버밍햄대학에서 조

직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종교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마스 멩기자



권혁빈 목사

라이프 섹션

13면 복새통

- » 신간소개 | 장로와 집사에 관한 40가지 질문, 나에게 설교하라 하
- » 서평 | 예수님과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16면 푸드 & 레시피

이탈리아 수제비 뇨끼,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17면 여행 · 레저

투어멘토 박평식의 캘리포니아 여행이야기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o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접수마감일: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신천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막는다

UBM교회에서 신현욱 전도사 초청 세미나 열려

그동안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 개별 포섭을 벌여왔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이 남가주 교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청되는 가운데 이들의 실체를 알리는 '신천지 돌파 세미나'가 마련됐다. 지난 19일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에서다.

이단 대책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전 신천지 교육장 신현욱 전도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가 나섰다.

스무살 때부터 무려 20년간 신천지에 빠져 교육장 7명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해 온 그는 5년 전 신천지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신천지 대책 강의 사역자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존 교회를 향한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 의식이 느슨하며 교계 차원의 대응 역시 소극적 방어에 머물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천지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자칭 보혜사, 재림주로 자처하는 교주 이만희와 이만희 재림주 교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신천지는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짜맞추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본문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경해석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일례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4천을 실제 숫자로 오역, 이 수를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자기들의 추수밭으로 인식하고 이른바 ‘추수꾼 침투식’ 포교를 하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소위 ‘추수꾼’이라는 비밀 요원을 침투, 성도들을 미혹하여 빼내는 수법이다. 이번 아니라 목사의 비리 등을 조작, 이간질시켜 목사를 추방한 후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수법인 ‘산굼부리 작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리웃 가장 ▷정탐하기 ▷성 돌기 ▷알곡선정 ▷목자 되기 ▷정복하기 ▷추수 등의 가나안 정복 7단계 작전을 통해, 연기하듯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이용하는 ‘모략전 도법’을 쓰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 및 개인성향을 파악하고 신천지 교인들 간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다시 접근하는 수법이다.

또한 복음(선교)방 및 선교센터 및 아카데미 등으로 불리우는, 간판이 없

거나 위장된 간판이 걸린 밀실 장소에서 ‘세뇌 교육식 포교’를 자행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평소에 건강하고 올바른 구원론, 기독교론을 배우고 정립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우연을 가장한 만남 혹은 부당한 관계 형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절대로 교리 논쟁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 발생시 이단상담소를 찾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단·사이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참여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하는 경우에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즉시 연락을 끊고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도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과자 취급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는데, 적어도 이단에서 나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온 탕자같이 따뜻하게 돌봐주고 품어주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www.antiscj.net 또는 ‘CBS 신천지 OUT’ antiscj.cbs.co.kr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집회를 기획한 UBM교회 앤드류 김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신천지 사절!’ 혹은 ‘신천지 out!’이라고 외치기보다 그들의 교리적 문제점을 알고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처해야 할 때”라며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천지를 이제 함께 돌파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목사는 오는 12월에도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리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을 바른 신앙 생활로 돌이키도록 하는 ‘신천지 정면 돌파 성경의 맥’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다.

정한나 기자

한인 청소년비전센터 닉 부이치치 초청 집회

내달 6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왼쪽부터 전동은 사무총장, 김영길 대표, 김영대 이사장, 알렉스 유 행사 코디네이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인 사람, 닉 부이치치가 오는 10월 6일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 강사로 나선다.

닉은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에 돌도 없는 낙천주의자가 됐다.

17세에 비영리단체 ‘사지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을 조직했고, 대학을 졸업한 21세 때부터 지금까지 24개국 2백여만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왔다.

LA중부지역교회협의회 산하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KYVC, 이사장 김영대 목사·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6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를 기획한 KYVC는 학원 선교, 문화사역, 상담사역 등을 통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게 도와주고, 또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월에 시작됐다.

KYVC 김영길 대표, 김영대 이사장, 전동은 사무총장 등은 지난 20일 한인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쪽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불굴의 노력으로 모든 시련과 절망을 극복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의 삶은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

이라고 전했다.

KYVC 측은 또 “이번 집회는 특별히 닉이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는 한인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2세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집회인만큼 강의는 전부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KYVC는 현재 김충만 전도사를 비롯한 7명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세리토스하이스쿨, 사이프레스하이스쿨, LA하이스쿨, 가하이스쿨, 워런하이스쿨 등 5개 고등학교에서 클럽을 만들어 매주 한 차례씩 각 40~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파는 물론 복음으로 청년 리더십을 훈련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학내 폭력과 마약, 범죄, 왕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최측은 또 “이번 집회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책자 광고와 자발적 헌금을 통해 행사를 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관련 문의는 KYVC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714-904-6298)에게 하면 된다.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체크 보내는 곳: 14241 Imperial HWY. #G La Mirada, CA 90638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KYVC

정한나 기자



신현욱 전도사가 신천지의 교리를 정통교리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 경제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 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 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영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생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Lee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Indian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문 최상의 장학금 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 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신학 Ph.D	48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정말 지독하게” 큐티하는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큐티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 이뤄”

큐티를 ‘지독하게’ 하는 교회가 남가주에 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무언의 압력(?)으로 인해 큐티를 안 하고는 버티지 못한다. 큐티를 생활화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지만,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한다. 그만큼 큐티가 생활화돼 있어 성도들간의 교제도 늘 말씀과 목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큐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전교인들에게 적극 권장하면서, 큐티를 엔진으로 하는 교회, 캘리포니아 토렌스 인근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를 만나봤다.

티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야 깨닫는다고 했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알아들을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다. 큐티를 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큐티를 지성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큐티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이 큐티하는 삶이다.

-목회자는 큐티를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이, 그리고 깊게 해야 할 것 같다.

목사를 은사로 본다. 성경에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했다. 목사라는 은사를 받은 것이다. 목사는 큐티를 하고 평신도는 안 한다는 개념이 우리 교회에는 없다. 평신도들이 각 가정에서 심방하는 개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는 부목사가 없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부목사도 교회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직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가족의 개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한 구성원이다. 교회 구성원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식사를 잘하는 세미나’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배운다. 여러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자연스럽게 자란다.

우리도 물론 큐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이 아이가 가정에서 성장할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용 목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부흥회는 가끔 하지만, 큐티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회 달력에도 하루하루 성경구절이 적혀 있다. 웹사이트에도 큐티가 올라가 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다. 그렇듯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 전에 성도 한 명이 큐티를 나눈다.

수요예배에는 어린이도 참여해서 설교 전에 3~4명이 묵상한 성경구절을 3분 이내로 나눈다. 수요예배는 큐티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새벽예배도 마찬가지로 묵상한 성경구절을 나누고 예배를 드린다.

지금은 무작위로 지정해서 큐티를 나누게 한다.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이해할 정도이다. 교회 초창기 때 첫 1년까지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언질을 줘서 나누게 했다. 큐티를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신 분들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

참고로 목장모임도 그날 큐티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큐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이 큐티다. 묵상하는 성경구절 앞뒤 문맥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큐티는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했던 큐티 내용이 중요하다.

먼저 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읽고 종이에 적으라고 한다. 성경구절에 나오는 인물을 적고 자세하게 내용을 요약한다. 내용을 요약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해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발견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하루 동안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큐티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큐티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매주 주일설교도 큐티를 기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 주 큐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부담이 적다. 묵상했던 말씀을 듣고 전하니 비교적 쉽다. 묵상한 말씀에 주석과 책의 내용을 더해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큐티를 제대로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큰 성장은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전 교인이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가족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교회는 성도간에 잘 알아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교제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멩 기자

어린이들도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담임목사와 큐티 직접 나눠

큐티는 지식인만? 큐티하면 기도 못한다?

큐티 없이는 목회할 수 없을 것

큐티 말씀을 이메일로 담임목사에게 보내면, 담임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이를 확인하고 답변을 준다. 그러면서 담임목사는 어린이들과의 벽을 허물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또 매 예배 설교 전에 한두 명의 성도들이 묵상한 큐티를 나누면서 은혜를 더하고 있다.

큐티(QT)는 quiet time의 줄임말로, 경건의 시간을 뜻한다. 이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성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꼽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닮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있는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제의해 주셨다. 그분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였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故 하용조 목사님이 시무했던 연예인교회에 다녔는데, 하 목사님이 큐티를 많이 강조했다. 큐티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흔히 우리가 큐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식인들만이 한다는 개념이 있고, 또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말씀에는 기도가 따라야 하고, 기도는 말씀이 따라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큐티가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삶이 큐



코너스톤교회의 폭발적이고 뜨거운 예배의 기저에는 큐티가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원로목사회, 조국과 미국·세계 복음화 위해 기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정기월례회 개최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라무열 목사)가 지난 20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80여 명의 원로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예배 및 월례회를 드렸다. 1부 예배에서는 라무열 목사의 사

회로 전용한 목사의 기도에 이어 진유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누가복음 17장 11-19절을 본문으로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참석한 원로목사들은 조국과 미국을 위해, 세계평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고, 이성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현대신학 사조의 흐름과 우리의 자세'라는 제하로 김창식 목사가 강연을 펼쳤고 이후 나성순복음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 및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원로목사회는 매달 두 차례씩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지난 6개월에 걸쳐 <성경과 성서>, <안식일에

대하여>, <한국 근 선교 현황과 효율성>,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 실천을 주장하는 학문> 등의 주제 하에 6개 연구팀을 구성해 두 차례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최근 원로목사회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중단 없는 한인교계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상을 제정했고, 제1회 수상자에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당시 미기총 대표회장)가 뽑혔다.

또한 원로 목회자 가족 위로 관광 등을 통해 원로 목회자들의 복지에 노력한 박효우 목사(당시 남가주한인목사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한나 기자 설교하는 진유철 목사

선교와 이웃을 돕는 사랑의 찬양제 성대히 개최



찬양제에서 나성성결교회 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다.

해외선교를 후원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홍순헌 장로) 주최로 23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제6회째를 맞은 이번 찬양제에는 글로벌아한인합창단(지휘 권혁래), 나성성결교회(지휘 신영안), 남가주장로성가대(지휘 김원제),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미주평안교회 살롬남성중창단(지휘 한홍윤), 세계비전교회 여성성가대(지휘 황영옥), 인랜드한인교회(지휘 이재경), 충현선교교회(지휘 이은영), 한소망교회(홍유현), 알렐루아 싱어즈 남성중창단

(지휘 이해익), Joyful 선교중창단(지휘 서문옥), USAMA 색소폰 오케스트라(지휘 이재욱) 등이 참여해 그동안 같고 닳은 솜씨를 드러냈다. 특히 모든 참여자들이 연합해 '이 믿음 더욱 군세라'를 불러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홍순헌 회장은 "찬양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며 "제6회 찬양제를 통해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고 또 외치는 귀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원한다"고 전했다.

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찬양제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사회를 박광원 장로(장로협 부회장), 기도를 하기에 장로(장로협 직전회장), 말씀을 민중기 목사, 헌금기도를 손수웅 장로(장로협 증경회장), 헌금기도를 유문근 장로(장로협 회계), 헌금특송을 테너 김준만 씨가 맡았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윤선식 목사(나성금관교회)가 축도를 함으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박희민 목사 "건물보다 리더 하나 잘 키운다면"

세계선교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부흥회 개최

세계선교교회(최은형 목사)가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부흥회를 21일부터 22일까지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박희민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그는 22일 오후 7시에 '비전과 사역'(마 9:35-3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먼저 청소년 사역에 대해 생각을 털어냈다. "청소년 사역은 어린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애들이 설령 머리를 염색하고 걸렁걸렁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외모는 변할

니다. 어른의 눈높이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죠."

그는 "아이들의 75%는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100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이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배웁니다. 이민교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보면 많은 경우, 부모들이 망칩니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차타고 돌아오면서 부모들이 목사 설교가 어떻다고 평가하고, 장로, 집사에 대해 험담을

늘어 놓으면, 자식들은 안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건물은 100년이 지나면 허물어야 하지만 사람 하나를 잘 키우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른다. 크리스천 정치인, 기업가, 예술가 등 리더를 키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박희민 목사가 세계선교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푼다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제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www.igmc.org 글로벌선교교회

LA 통일(북한)선교대학

2012 가을학기 학생모집

통일(북한)선교대학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에서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가능(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학기일정** 가을학기: 10월 11일(목) - 12월 20일(목)
1)출석 수업: 목요일 저녁 클래스 (저녁8시-10시30분)
2)통신 수업: 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리포트 제출
- 강의장소** 글로벌선교교회(담임김지성목사) 그레이스룸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 909-630-8722)
- 강의내용** 선교학, 북한의 실상, 북한교회사, 미국/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비전, 북한선교 현장(구호, 의료, 교육, 비즈니스 사역 등등), 자유북한인 간증 등등
-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학비면제)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사역현장 참관 가능
- 입학/원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관심자면 누구나 환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매, 신앙간증문(구원간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 포함)
- 등록문의** 구동립목사: 909)396-4441, dongripku@hotmail.com, www.igmc.org
조영길장로: 626)715-9657 / 박남수장로: 213)247-9116 / 김상우목사: 213)965-4002
- 교수진** 김지성목사(LA통일선교대학학장), 김대평목사(바위선교회), 김철웅선교사(바울선교회), 김인수총장(전 미주장신총장), 임윤택교수(캘리포니아대), 이광길교수(풀러신학교), 양영식박사(전통문화연구원), 배기찬교수(전대통령동북아비서관),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북한실장), 전영일박사(국제전략학회연구소), 이우용목사(미주동북아문화협력재단), 임현수목사(토론토대신학교), 고승희목사(아름다운교회), 양피터목사(FOC), 조기연목사(한기총교육국장), 김정환선교사(SONDI니스트리), 김상우목사(유니온신학교), 서훈박사(전국정원차장), 김병로박사(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캔안선교사(GMTT), 이석목사(모퉁이통신교회), 이재환선교사(Come미션), 박신욱선교사(SEED선교회), 문정임목사(빛나라교회), 성현경목사(파사디나장로교회), 2세 사역자, 자유북한인 등등
* 그동안 강의하신 분들중 일부입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
학장: 김지성목사, 학감: 김상우목사, 이사장: 조영길장로 ☎ 909.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안식일(安息日)에 대한 소고(溯考)

히브리서 4:8-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안식일(영-SABBATH/히-샬바트/헬-샬바톤)의 뜻은 편안히 쉬는 날이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말합니다(느13:19) 그리고 그 뜻은 '멈추다'입니다.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A. 안식일의 유래

창세기 2:1-3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20:8-11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쉼이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속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내제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출애굽기 34:21에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쉼이니 밭 갈 때에나 거둬 때에도 쉼이"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거나 짐승에게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21-22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전날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26-27을 보면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 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3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C.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하심

출애굽기 31:14-15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D.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실 날로 지키라 하심

출애굽기 31:13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즉 너희로 알게 함이라" 했습니다.

레위기 24:8을 보면 "항상 때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으며, 민수기 28:9-10에는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흙 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때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성막의 진설병이 차려졌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1-6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강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 병도 고치시며 구원을 하심

마태복음 12:10-13에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멍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C.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누가복음 14:1-6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했

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10-17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분을 내어 여섯 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년간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때 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마가복음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날로 살게 된다

마태복음 22:35-40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1-4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한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율법을 준행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이나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단도 있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救贖史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서 3:20-24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17에서와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으니 진실된 회개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로 물속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7-8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살아있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날로 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극한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징: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us

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레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친후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0월 15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레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당회서기 우상욱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외는 이메일로 만 받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2.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당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지금은 복음통일과 선교한국 위해 기도할 때”

LA통일(북한)선교대학 가을학기 학생 모집

LA통일(북한)선교대학이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는 10월 11일(목)부터 12월 2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에 걸쳐 글로발선교교회 그레이스룸에서 진행된다.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통신수업도 제공된다.

강의 내용은 선교학, 북한의 실상, 북한교회사,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등이며 김지성 목사(LA통일선교대학 학장, 김철용 선교사(바울선교회), 임윤택 교수(윌리엄캐리대학), 이광길 교수(풀러신학교),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북한실장), 이삭 목사(모퉁이 돌선교회), 박신욱 선교사(SEED선교회) 등이 강의한다.

북한선교 및 세계선교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 1통(www.jgmc.org에서 다운로드), 사진 1매, 북한선교에 대한 비

전을 담은 신앙 간증문을 제출하면 된다.

학비는 한학기 당 100불이며 탈북자, 조선족에게는 학비를 면제해 준다. 수료 후에는 북한 방문 및 중국 사역현장 참관의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909-396-4441
dongripku@hotmail.com(구동립 목사)
주소: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7
한주연 기자

늘푸른선교교회 창립 10주년

애너하임에 위치한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최성은 목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25일부터 2주간에 걸친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7시 감사예배와 함께 ‘한 가정 한 가족 초정’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감사로는 김경환 목사(실크로드 컨택션 대표)가 나선다. 이에 앞서 10주년 기념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펠로십교회 김원기 목사를 초청해 부흥

회도 가질 계획이다. 늘푸른선교교회는 지난 2002년 9월 29일 첫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현 교회 장소로 이전했다. 최성은 목사는 2011년 3월 부임해 ‘말씀과 열정이 살아있는 예배, 복음 안에서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는 선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목회하고 있다.

문의: 714-632-9191
정한나 기자

한마음교회 창립 32주년 특별음악예배 준비

풀러튼에 위치한 한마음교회(심상래 목사)가 창립 32주년을 맞아 10월 7일 오전 11시 주일예배를 특별음악예배로 드린다. 교회 측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은혜와 감동의 음악예배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회 32주년 행사로 구역별 친선 탁구대회와 친선골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562-412-8274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은파교회 창립예배

지난 9월 16일 남가주 은파교회(강승배 목사)가 창립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강승배 목사가 인도한 예배는 EunPa Grace Wave의 경배와 찬양, 이정구 목사의 기도, 김경섭 목사의 축사, 이영진 목사의 축가, 허영진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으며 김상규 목사(LA 안디옥교회 원로)가 “은혜가 파도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소: 1940, E. Locust St. Ontario CA 91761
한주연 기자



미주장신대 2012 추계신앙사경회 개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목사)는 내달 2일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빙해 2012년 추계 신앙사경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내 채플실에서 열리는 이번 사경회는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 하에 <다윗과 골리앗: 목회는 야성이다>, <아람과 이스라엘: 목회는 수준이다>,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목회는 행동이다>라는 부제의 강의를 각

각 진행될 예정이며 외부에도 개방돼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 562-926-1023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주소 www.ptsa.edu
정한나 기자

제6차 영상설교세미나 열린다... 내달 1일부터 한미장로교회

남가주 목회자들을 위한 제6회 영상설교세미나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한미장로교회(929 S. West Lake Ave. LA)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영상설교아카데미 대표 김석규 목사가 나선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용관그림설교와 파워포인트 130여편을 출판한 김

목사는 ‘목회에 필요한 영상설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세미나 및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용은 포도삼을 비롯해 파워포인트, 캠페이샤, 무비메이커, 베가스, Ulead Cool 3D, 비터, 포토샵인, 타이틀 데코, 스위시 맥스, 안 카메라, 파일

변환프로그램 등 기타 목회에 필요한 제반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한다. 등록비는 80불. 이밖에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양경선 목사(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총무)에게 하면 된다. 문의: 213-255-1725
토마스 맹 기자

OC교협 주최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가 주최하는 <차세대 부흥과 주일학교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OC교협과 나침반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 후원한다. 이번 세

미나의 주강사는 ‘SS 혁신보고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만형 박사다. 김 박사는 총신대학교와 합동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트리니티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종교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사범대학교에서 수석부목사로 18년간 사역했으며,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친구들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배속 드라마 1,2>, <크리스천축제 1,2,3>

등 다수가 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자녀교육 세미나1 29일(토) 새벽 6시: 자녀교육 세미나2, 오전 10시-오후 4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저녁 7시 30분: 자녀교육 세미나3 30일(주일) 오후 3시: 자녀교육 세미나4 10월 1일(월) 오전 10시-오후 12시: 목회자세미나, 오후 1시-3시: 차세대 솔루션 목회자포럼
정한나 기자

협회 명의 성명에 다수 회원사 “몰랐다”

최근 <세계기독교인론험협회(회장 서인실) 외 회원 일동>이란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본지와 그 설립자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여과없이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큰 흠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협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성명은 세계기독교인론험협회에 의해 발표됐으며 <세계기독교인론험협회 외 회원 일동>이란 발표자 명단 뒤에 회원사인 17개 언론사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중 대다수는 이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동의하지는 커

녕, 이런 성명이 발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 언론사는 본지에 “이 내용에 대해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서면으로 답변해 왔으며 또 다른 언론 역시 “협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지만 확인하진 않았으며 자신은 이런 일로부터 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라디오 방송국은 “이런 성명서가 나간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 신문은 “광고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사 직원의 개인적 입장이 지 결코 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캐나다의 한 언론사는 “협회

가 하는 일에 일반적으로 동참하지만 이번 성명과 관련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성명은 세계기독교인론험협회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협회 내 일부 극소수가 주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들이 왜 협회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회원사들과 논의 하기는 커녕, 통보하는 절차까지 생략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는 “성명서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까지 밝혔다.

여행 잡지 투어멘토 무/토/베/포 9월호
아주관광 본사 및 각 지역 주요 한인연소에서 만나세요

고객이 기대한 그 이상의 감동여행!

US 이주투어

재미있고 유익한 **여행 특강 방송칼럼**
매주 목 8pm 라디오서울 AM1650
한국인보 매주 금 Weekend 색션 박평식의 여행이야기

모국축제

설레는 모국관광을 가지기전에 각고장의 전통축제를 확인하세요. 같은 가격에 축제의 모든 입장으로 무료해택과 각 고장의 향토음식까지! 일석삼조의 알찬 아주관광 모국축제관광으로 다녀오세요.

보은대추축제 + 소싸움대회
4일 + 제주 2박
\$349+항공료
출발 10/19
추가 \$249
출발 10/19

남강유등축제 + 서해일주
4일 + 제주 2박
\$349+항공료
출발 10/5
추가 \$249
출발 10/5

순창장류축제 + 서해일주
4일 + 제주 2박
\$349+항공료
출발 11/2
추가 \$249
출발 11/2

품격
국빈사용 초특급 제주신라호텔 4년연속 단독계약

최고
홍내는 밭수 있지만 여행일정을 꼼꼼히 따지면 완전 다릅니다. **참맛과 참맛만을** 보여드립니다.

여유
5성급 호텔, 여행자보험 가능, **미리 떠나 합류가능**

아/주/단/독/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선운산, 지리산
5대 단풍명산 특선
단 2회 5일 \$1,649
출발 10/26, 11/2, 시니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호텔/식사 옵션포함, 각 고장 향토음식
오대산, 발왕산, 설악산
설악산 단풍특선
단 1회 4일 \$1,449
출발 10/20(밤)

전국일주 서해안, 거가대교, 제주2박, 동해안
10일 \$899+항공료
출발 금
인천, 부여, 군산, 광주,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진주, 거제, 창원, 제주2박, 부산, 경주, 대구, 충주, 속초, 양양, 서울도착

제주 신라/해미치 숙박, 전일정 특식 포함
4일 \$249+항공료
출발 월, 화
민속자연사박물관, 오설록 신비의 도깨비 도로, 국제평화센터, 천지연 폭포, 석부작 테마공원, 굴림성 동장, 주상절리대, 산방산, 올레길 7코스 걷기투어, 범섬, 문섬, 외돌개 바위 올레길 투어, 용머리해안, 섬지코지, 성삼일출봉, 성음민속마을

동해/제주 or 서해/제주 7일 + 서울 2일 \$829 +항공료
출발 월
동해일주 5일 \$349+항공료 + 제주 2박 추가 \$249
출발 수
부산, 경주, 안동 하회마을, 단양 8경, 설악산 + 제주2박

서해일주 5일 \$349+항공료 + 제주 2박 추가 \$249
출발 금
서해안, 거가대교, 남해안 + 제주2박

이 유로스타, TGV(특급) 사용 | 현지전문&본사 가이드 2인 입체시스템 | 알프스 영봉 360도 파노라마 뷰 완성 | 같은 일정에 타사보다 2개국 더 관광

Deluxe 명품유럽

아테오라, 세상 꼭대기에 수도원이!

5성급 호텔! 국내선 항공(\$150 상당) 이등으로 버스타는 시간은 줄고 관광은 편안하게

혁신 그리스/터키 10일 \$2,899 출발 10/17, 12/20
이stanbul,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온천, 트로이 목마, 데살로니카, 마테오라, 고린도, 아테네

영품 서유럽 유로스타 TGV(특급)
7일 \$2,299 11일 \$2,999
출발 10/8, 22, 12/19
(핵심 7일 일정 - 런던, 파리, 바젤, 루체른, 부다페스트, 비엔나, 슬로베니아, 잘쯔부르크, 뮌헨,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소금광산 & 발칸의 부국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 포스토니아 동굴을 추가 관광하는 상품은 아주관광의 동유럽 상품입니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 **정열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출발 10/8 12/19 11일 \$2,799
리스본, 페스, 모로코, 리바트, 카사블랑카, 일헤시라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동화 동유럽/발칸 비교불가!
출발 10/8 10일 \$2,999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프라하, 크라코우, 오시비엔칭, 비엘리키아, 동유럽의 알프스-타트라, 부다페스트, 비엔나, 슬로베니아, 잘쯔부르크, 뮌헨,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소금광산 & 발칸의 부국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 포스토니아 동굴을 추가 관광하는 상품은 아주관광의 동유럽 상품입니다.)

피사 이탈리아일주
출발 9/28, 10/12, 26, 12/24
7일 \$2,099
밀라노 In, 로마 Out, 피사가 포함된 -

인도/네팔 투어멘토 박평식 교수 동행
출발 11/12 14일 \$4,499

아프리카/두바이
출발 2/4/2013 14일 \$7,399

북유럽/러시아 크루즈 2인 포함
출발 6, 7, 8월/2013 13일 \$5,399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출발 1월/2013 14일 \$3,999

여행은 가슴떨릴때 다리 떨리기전에 가야합니다!

중국일주 14일
출발 10/14(밤) \$2,699
북경(2박), 장가계, 원가계, 서안, 계림, 항주, 황산, 소주(우식), 상해

상해/항주/황산 5일
출발 > 매주 일(밤) \$1,390

북경/만리장성 5일
출발 > 매일 \$1,179

북경/만리장성/황산 7일 출발 > 매주 일(밤) \$1,799

북경/상해/생도구재 7일 출발 > 매주 일(밤) \$2,599

북경/상해/장가계/원가계 7일 출발 > 매주 일(밤) \$1,859

북경/상해/소주항주우식 8일 출발 > 매주 일(밤) \$1,699

동남아

태국-캄보디아/앙코르왓 7일 출발 10/28, 11/15 \$1,699
본사가이드 동행

동남아일주 홍콩/상가계/인도네시아/태국 9일 출발 > 수시 \$2,799

홍콩/마카오 4일 출발 > 수시 \$1,499

발리에서 생긴일 5일 출발 > 수시 \$1,699

발리, 인도네시아

방콕/파타야 6일 출발 > 수시 \$1,399

필리핀 세부 4일 출발 > 수시 \$1,299

크루즈

서지중해 9일 출발 10/19 \$2,349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니스, 칸), 모나코, 이탈리아(로렌스, 피사, 로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동지중해 10일 출발 10/27 \$2,299
이탈리아(밀린1박 특선, 베니스, 바리), 그리스(키타코르), 터키(이즈미르, 이스탄불), 크로아티아(드브르니크)

파나마운하 15일 출발 10/28, 11/11 \$1,549
카보산루카스, 푸에르토 발리타, 후아틀코, 푸에르토 치아파스, 푼타레나스, 카르타헤나

신년 특선 남미 14일 출발 1/19/2013 \$3,999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푸타페스테, 푸에르토리코, 케이프호, 우술아이, 폰타레나스, 아델로스, 칼리쿠, 푸에르토 몬트, 발타리아스

호주/뉴질랜드 15일 출발 10/22 \$3,399
시드니, 더블린, 아로아, 웰링턴, 네이피어, 티우랑가, 오클랜드

멕시코 리비에라 8일 출발 > 매주 일 \$699
3일 출발 > 매주 금 \$349
4일 출발 > 매주 월

세상의 존경을 받는 당신을 위한

아주관광만의 특별서비스!

www.usajutour.com | www.facebook.com/ajutour | www.twitter.com/usajutour

무료픽업 > 가든그로브, 세리토스, 토렌스, 가디나,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 등

아주좋은 여행이야기 -

이주관광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아주좋은 여행이야기 -

이주관광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이 사람] '엘리아의 시대'에서 차세대 사역 해법을 찾아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고 화요 모임과 성경공부로 청년 복음화에 온 몸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오대원 목사가 『These are the days of Elijah』(엘리아의 시대) 영문판을 출간했다. 한국어판은 번역이 완료됐으며 내년 1월 출판될 예정이다. '엘리아의 시대'는 엘리아와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믿

자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 장소인 시애틀 인근의 안디옥 국제선교센터에서 오 목사를 만나 책 소개와 근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었다.

- '엘리아의 시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엘리아의 시대〉를 출간한 오대원 목사. 그와 차세대 사역, 북한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한 오대원 목사 인터뷰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신뢰 관계 형성돼야

바알의 시대 같은 현대, 크리스천의 사명은?

음의 계승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16가지 다양한 주제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엘리아 시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엘리아와 엘리사의 믿음의 계승과정을 바라봄으로써 성경적 세대교체를 고찰하고 위기에 직면한 차세대 사역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오대원 목사는 전립선 암 치료 중 임에도 편안함을 누리며 삶의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길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에 대한 치료보다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며 말씀 묵상에 젖어 있었다.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예배처소이

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선택한 과목이 엘리아와 엘리사였습니다. 두 선지자에 대해서만 한 학기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놀라운 사람으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안고 살아 왔습니다. 저를 치료하는 의사는 안정을 찾고 휴식하라고 말을 하지만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두 선지자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엘리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들의 목표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단절되게 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가 끊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책을 통해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두 선지자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십니까?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오래된 신이고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바알의 선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엘리아의 시대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 역시 확고한 믿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차세대의 신앙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세대 믿음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엘리아는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렇듯 젊은 세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기존 세대는 차세대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지도해야 합니다. 또 기존 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원망이나 비난만 하기보다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이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말씀과 믿음, 사랑과 선교 등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느 시대건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나 상황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세대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믿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이 사역 일선으로 나설 수 있게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4-14월도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대개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나 단체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을 초등학교, 중학교 부서로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차세대는 성숙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세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아는 엘리아를 존경했습니다. 또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기존 세대에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배우려는 태도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특별한 성경 묵상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인물 묵상을 자주 합니다. 요즘은 요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으면 전체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해 보구요. 시편 119편만 가지고 3개월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요즘 오 목사가 하루에 성경을 한 권씩 읽기 위해 노

력하고 있음도 귀뜸했다.)

-치료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광고할 필요는 없지요. (웃음) 전립선 암인데 작년 말에 암이란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올해 4월부터는 호르몬 치료, 6월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 선교사를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서북미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를 축복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고 내년에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부흥을 위해 애쓰고 싶습니다.

-북한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북한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같이 볼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인정이 많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남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친북 성향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농장도 경영하고 공장도 세우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계도 외부 세계와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활발히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를 볼 때 남한과 북한만 봐서는 안되고 동북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남한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반도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의 역할이 큼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복음화가 되면 북한에서 선교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김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원장 이 엘리사 목사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성령의 강력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목사 323.496.2550 자궁암 말기, 저혈압 완전치유	 제니 변 323.383.1917 마약, 도박중독, 우울증말기 완전치유 현재 주방봉사	 김 경수 213.248.7379 당뇨, 담석말기 완전치유	 정영호 집사 213.364.4477 천식, 가래기침, 대상포진 완전치유	 여호수아 변 818.288.3992 불면증, 시력이상W 비준, 무릎 관절염, 아토피 완전치유
---	---	---	---	--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24시간 전화 213-382-3258/ 213-725-3007
주소 1331 S.Vermont Ave. L.A. CA 90006

총회 막판 파열음... '안개정국' 합동, 어디로 가나

[분석] 현 사태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설립 100주년을 맞은 예장 합동의 제97회 정기총회 막바지에 파열음이 발생했다. 총회 마지막날(21일) 정준모 총회장이 폐회 선언을 한 뒤 수백명의 총대들이 남아 폐회 선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것.

합동측 총회는 개회 전부터 잡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폐회할 시간인 21일 오후 12시 경이 되자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하자"는 동의와 제청, "법외"라는 외침이 잇따라 나오자, 정준모 총회장은 곧바로 폐회를 선언했고 임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그러자 자리에 남은 총대들은 "의장이 가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현 총회장과 총무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총회장 등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습 폐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다.

이에 남은 총대들은 15인 비대위를 구성하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총회장 불신임안과 총무 해임안에 서명을 받고, 총회 지도부에 비상 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총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비부 활동을 중시하고 노회 상회비 및

각 교회 세례 교인 헌금 납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측 인사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구(舊)개혁측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쌓이고 쌓여 있던 교단 내 알력다툼이 표출된 사건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이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교단 분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준모 총회장은 합동측 인터뷰 언론인 시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폐회 선언 배경에 대해 "여론몰이로 총무를 해임시킨 후, 총회장 역시 무장해제시킨 다음 부총회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 등을 보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만이 총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정 총회장은 비대위측에 대해서는 "여론이 법과 규칙을 잠재울 수 없다. 법에 위반되었다면 책임지겠다. 그러나 수가 많이 모이고 서명을 많이 받았다"고 법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폐회 선언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다소 무리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추대된 의장에 의한 폐회 선언을, 법원이 불법이

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첫날 개회 당시 마지막 날 회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회순을 임시로 채택했던 바 있다.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의 저자인 신현만 목사는 "총회 회무 중에 예정된 시간에 파회를 선언하는 것은 총회장이 갖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총회가 파회된 후에 조직된 모임이나 결의 자체는 불법이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고 시포커스는 보도했다.

지난 2011년 1월 2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도, 회무처리 도중 소란이 일자 의장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당시 남아 있던 다수의 총대들이 "일방적·독단적 정회"였다고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속회했으나, 결국 법원은 이광선 목사의 정회는 합법이며 남아 있던 총대들의 속회는 불법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

이번에 합동측에서도 폐회 선언 후 남은 총대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해 속회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했으나, 이 같은 판례를 의식한 듯 비대위를 구성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렇다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총회장을 비롯한 합동측 총회 임원들은 정상적으로 선출돼 4일째 회무를 큰 이



노회장들이 비대위 구성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하고 있다.

상 없이 진행해왔다. 만에 하나 법원에서 폐회 선언이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할지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하지만 비대위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은 총회 지도부로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비대위측은 이날 남은 총대 수가 842명이며, 그중 노회장이 1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 총회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노회들이 상회비 등의 납부를 유보하며 압박한다면 총회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 총회장과 총무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결하는 부

분도 과제이며, 총회가 총회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했던 것에 대한 거대한 반발 여론도 문제다.

반면 총회 지도부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경우 비대위측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패소할 경우 소속 노회 전원 총대권 5년을 제한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가처분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소란에 휩쓸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에, 노회 지도부가 비대위측에 있더라도 뜻을 같이하지 않는 교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대위의 한계는 합법적인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라는 점이다.

김진영 기자

낙태 반대 75%, 동성결혼 반대 64%

기공협, 국회의원들의 공공정책 견해 조사 발표



기공협이 제19대 국회의원 공공정책 및 종교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현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견해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기공협은 "국회의원들의 공공정책 및 종교 관련 의견을 수집하여 공정한 종교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독교 공공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공공정책 인식도 조사는 한국교회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공공정책 과제(1, 2순위 합산)는 첫째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71.1%), 둘째 청년 실업 증가에 대한 청년 실업률(40.1%), 셋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출산장려(24.3%), 넷째 물가 상승에 대한 물가안정(22.9%), 다섯째 노령화 사회에 대한 노후 대비(16.9%), 여섯째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윤리 회복(12.3%), 일곱째 헌법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의 확립(8.6%), 여덟째 청소년 성적 문란에 대한 영상물 규제(1.3%), 아홉째 사행성 산업 확산에 대한 도박규제(0.6%) 순으로 나타났다.

기공협은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한국교회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여, 사회 기여도에 대한 높은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저출산 현상 개선' 질문은 긍정이 63.8%, 부정이 35.6% ▲'종교의 자살 예방 도움' 질문은 긍정이 88.5%, 부정이 10.2% ▲'낙태에 대한 찬반' 질문에서는 반대가 75.1%, 찬성이 14.5%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질문은 반

대가 64.1%, 찬성이 22.3% ▲'북한인 권법 통과에 대한 찬반'은 찬성 62.4%, 반대 24.9%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공협에서 추구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과도 대략 일치하는 결과다.

▲'공무원의 종교활동 자유'에 대해 80.9%가 '종교활동 제한은 문제'라고 응답했고 ▲'종교를 고려한 진학, 중·고등학교 자율선택'에 대해서는 찬성 57.9%, 반대 22.3% ▲'이슬람채권법 도입'은 반대 42.5% 찬성 22.1% ▲'한국 기독교의 역사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 73.8%, 부정 6.8% ▲'근대 기독교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보호에 대한 찬반'은 찬성 63.7%, 반대 11.3% ▲'교회의 해외선교활동이 한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 53.4%, 부정 24.6%로 응답해, 기독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로 밝혀졌다.

반면 ▲'우리 사회가 우대하는 특정 종교는 어디인가' 질문에는 기독교 39.8%, 불교 3.1% 천주교 0.6% ▲'종립 학교의 종교 교과 및 선발 기준의 자율성 보유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찬성 33.7%, 반대 44.7% ▲'타 종교보다 불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별 문제 없다'가 44.1%, '균형적으로 맞추자'가 29.5% ▲'종교계 예산 관련 외부기관 필요 주장' 공감 34.7% 비공감 42.1% ▲'종교시설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에 대한 인식' '위반이다' 32.0%, '위반이 아니다' 26.5%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는 어디인가'는 불교 21.3% 기독교 12.8% 천주교 2.4%로 응답해 기독교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로 나타났다.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는 "다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의 역할과 함께 근현대문화 형성에 기독교가 이룬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이번 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태진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T. 213.327.4710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i.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i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모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ocrdm.org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빛 선교교회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진우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김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 신의 흐름, 바른 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t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박학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점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전길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들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

뉴욕전도협 연합전도부흥성회 주순영 선교사 초청



간증하는 주순영 선교사

“그 때는 몰랐습니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이 신인 줄 알고 삶을 바쳐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당신을 향해 남은 생애를 다 바치는 참된 딸이 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낙원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 주최 탈북공훈배우 주순영 선교사 초청 뉴욕복음화 연합전도부흥성회는 철저한 김일성 부자의 신격화 앞에 억압받는 참혹한 북한동포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이러한 역경 가운데 주순영 선교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북녘땅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서사시’라는 주제로 이번 연합성회는 주순영 선교사의 간증이 3차례 시리즈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 둘째 날은 ‘십일조로 만난 하나님’, 셋째 날은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로 진행됐다. 성회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연합성회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북녘땅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서사시’라는 주제로 이번 연합성회는 주순영 선교사의 간증이 3차례 시리즈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 둘째 날은 ‘십일조로 만난 하나님’, 셋째 날은 ‘사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로 진행됐다. 성회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연합성회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AMAW) 창립

오대원 목사 회장으로 연합 선교의 새로운 전기 마련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 창립예배 참석자 기념촬영

워싱턴주 내 15개 선교단체는 지난 18일 페드럴웨이 새교회에서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Association of Mission Agencies in Washington, 이하 워선협) 창립예배를 드리고 연합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워선협은 회원 선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선교에 관한 지식과 정보, 선교 전략을 공유하고 연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워선협의 대외적 공식 활동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첫 리더십은 오대원 목사(성령의 샘 AISM)가 맡았다.

임원단으로는 회장 오대원 목사 외에도 고문에 황선규 목사(선한목자선교회 GSM), 부회장에 이상진 장로(지구촌선교회), 총무에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 서기에 배진규 목사(사택광만선교), 회계에 장영준 목사(시애틀밀알선교단), 감사에 이병일 목사(리빙투게더미션)를 추대하고 사역의 기틀을 마련했다.

애틀랜타 복음화대회 앞두고 회개와 부흥 간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2 애틀랜타 복음화대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도모임(7차)이 지난 20일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를 주최하는 대에틀랜타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백요셉 목사) 임원진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각 분과 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평양대부흥은 개인의 회개가 사회와 국가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애틀랜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쓰임받는 한가지 방법은 회개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부흥을 맛보는 것이다. 복음화대회가 다시 한번

애틀랜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있는 정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선 교협 서기 이재선 목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가정과 교회, 애틀랜타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길 기도하자. 또 성령으로 하나되어 복음화대회가 마지막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자”며 기도회를 인도했다.

한편,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고명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이번 복음화대회는 9월 27일(목) 오후 8시 임마누엘한인감리교회(담임 신용철 목사), 28일(금)과 29일(토) 오후 8시, 30일(주일) 오후 7시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앤더슨 김 기자



삶과 죽음의 거리 48M, 그 현장을 가다

영화상영회 개최... 참석자들 "눈 뜨고는 못보겠다"



탈북 인권 영화 48M 포스터



안혁 48M 제작자

“암록강변에서 놀다가 강아지가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 가던 어린 아이가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아버지가 굶어죽고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지만, 과정에서 딸이 죽자 엄마는 미친다.”

“죽은 가족을 업고 길을 가다가 경비대에 걸린 한 여성이 검문을 당하고, 성격이 나오자 심하게 구타당한다. 경비대는 ‘찾아봐라! 네가 믿는 예수 찾아봐라!’ 고함치면서 여성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발굽으로 땅에 머리를 사정없이 짓이긴다.”

“얇고 있는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딸, 하지만 딸의 남동생이 바로 48M 국경을 지키고 있는 북한 경비대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병보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탈북 시기를 북한 당국에 고발하고 자신은 독약을 먹고 죽는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인권 유린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탈북 인권 영화 ‘48M’, 그 상영회가 지난 22일 저녁 7시 필그림교회(담임 손훈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3년의 제작기간 동안 총 290여명을 인터뷰했고, 이 중 생생한 스토리 30개를 뽑아 영화로 제작했다. 대부분의 탈북 영화가 한 주제를 담고 있는 데 반해, 48M는 여러가지 주제를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보다 사실적이고 다양한 인권유린 사례를 완성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

안혁 제작자는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영화에서는 여성 및 어린이 학대 사례를 다양하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영화 상영이 끝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참석자들에게 깊은 적막이 감돌았다. 한나 파버(Hannah Farver, 패트릭헨리대학교 부속 We are NK 비영리단체 소속)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화로 보지만 하는 건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면서 “한국인이 아니지만, 나도 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가슴 아팠다”고 했다.

탈북 인권 영화를 보기 위해 혼자 상영관을 찾은 국승우 학생(16세)은 “암록 강변에서 놀던 어린이가 실수로 강아지를 따라 건너다 살해되는 장면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 유린이 심한 것은 알았지만 이런 정도 인지는 몰랐다. 영화를 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북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커서도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일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터 대표는 “영화의 내용이 너무 파워풀해서 할 말을 잃었다”며 “동일한 인간애를 갖고,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잔인성은 실체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잔인한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자유연합 헬리 송 대변인은 “모든 한인 교회가 48M 영화를 상영하고, 북한 인권에 눈을 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48M는 강제 복송 및 북한에서부터의 탈출기를 그렸으며, 탈출 이후 삶의 과정을 그린 영화가 내년 3월 경 출시된다. 영화 제작비는 탈북자들의 자체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런 상영회는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이 주도해 열렸으며, 상영문의는 SKSWM@aol.com으로 하면 된다.

권나라 기자

“내 아내” 단어 하나에 ‘예수 결혼’ 까지 확대해석

고대 파피루스 논란... 신학자들, 문학작품일 가능성도 제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아내는...’”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대 문서가 발견돼, 예수의 결혼 여부에 대한 논쟁이 서서 고고학계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하버드신학대학원 역사학자 캐런 킹(Karen King)은 지난 18일 예수가 ‘내 아내’라고 지칭한 4세기 고대 파피루스 문서를 해독,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 콥트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킹은 내년 1월 출간될 ‘하버드신학리뷰’라는 잡지에 이 분석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 분석은)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결혼 여부에 대한 논쟁을 낳고 있을 뿐”이라고 서술하면서 “예수의 결혼 여부에 대한 증거도 아니요, 그 아내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를 묘사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달라스신학대학원 신약학자 다렐 북(Darrell Bok) 교수는 “이 파피루스 문서가 진짜라면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최초 기록 문서가 된다. 하지만 이미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문서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북 교수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4세기경 쓴 문서로서 기독교 주류 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니다”라면서 ‘상징적 의미’로서 ‘아내’라는 단어가 쓰였을 가능성도 추가로 제기했다.

플러신학교 신약해석학 조엘 그린 교수는 “3~4세기 유명 문학 작품에서는 예수의 어린 시절, 사생애 30년, 결혼 여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양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문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후세기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 뿐”이라

고 일축했다.

공개된 이 파피루스는 가로 3.8cm, 세로 7.6cm 크기로, 글자는 돌보기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작다. 파피루스 문서에 기록된 총 8줄의 미완성 문장들은 아래와 같다.

-내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not [to] me. My mother gave to me li[fe...])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The disciples said to Jesus)

-부인하다. 마리아는 자격이 있다.(deny. Mary is worthy of it)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내는...’(Jesus said to them, ‘My wife...’)

-그녀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she will be able to be my disciple...)

-간악한 사람들은 부풀게 두라(Let wicked people swell up...)

-나에 대해서는, 나는 그녀와 ~를 위해 머물고(As for me, I dwell with her in order to)

-이미지(an image)

이 문서 발견에 대한 정황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킹은 “이집트 윌 지방에서 발굴됐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은 오는 9월 30일 스미스소니언 채널에서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방영될 예정으로, 예고편에 출연한 한 여성은 “사람들이 (이번 발견으로 인해) 기독교 신학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과장된 발언을 하기도 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북 교수는 “이 문서의 중요도를 과대 평가한 발언”이라며 “참고 정도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나라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 성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88-년 내로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믿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주일학교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성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랑을 뜨겁게사랑하며성경공부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정매우예배 오전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부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12:00(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랑,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게 하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마지막 앵콜 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9월 30일 까지)

프로모션 B (9월 30일 까지)

프로모션 C (9월 30일 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100불

100불



5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거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다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었다면 분명히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합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通

신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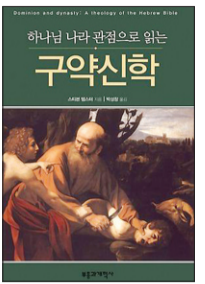
장로와 집사에 관한 40가지 질문
벤자민 L. 머클 | CLC | 416쪽

본서는 40가지 질문 시리즈의 두번째 책으로, 교회 리더십과 정치 형태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었다. 교파별로 다양한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 이 가운데서 찬반 논쟁이 있는 이슈들을 철저한 성경해석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며 오늘날 교회를 위한 성경적 모델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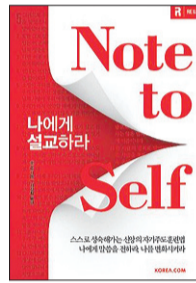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 관점... 구약신학
스티븐 뎀프스터 | 부흥과개혁사 | 320쪽

뎀프스터 박사는 성경의 큰 구조를 볼 수 있도록 '광각 렌즈'를 제공한다. 이 책은 히브리 성경이 문학적 다양성이 있음에도 구조적이고 개념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많은 본문이 더 큰 본문에 기여하며, 아담에서 오실 왕에게까지 이르는 '통치와 왕조' 안에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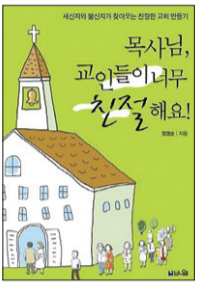
나에게 설교하라
조 슌 | 코리아닷컴 | 176쪽

누군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치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교훈을 얻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나의 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에게의 설교는 탁월한 말씀씨가 필요하지 않다.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친절해요
정영순 | 브니엘 | 208쪽

교회는 먼저 친절해야 한다.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등 모든 교인이 친절하다는 뜻이다.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 새신자와 불신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행복한 가운데 마음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예수님과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현대문화의 중심은 '현장'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거듭남을 누리야 한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일까?"라고 묻는 자신에게, 신간 「예수 빼고 다 바꿔라」는 변화의 도전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혼돈의 시대, 교회 세속화 시대에 옛 사람을 깨우는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환경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들 안에는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옛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는 이러한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저자 최명일 목사는 본문에서 "에서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가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단순한 장자의 명분만을 넘긴 것이 아니다. 그의 사명, 비전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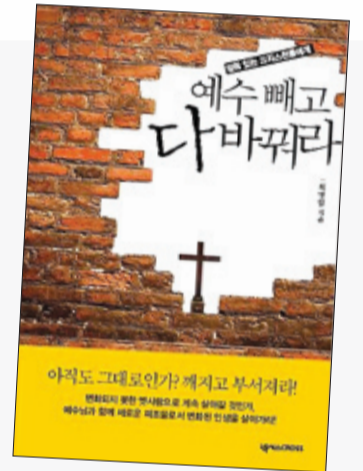
이어 "비전이 주는 축복도 잃어버린 것이다. 에서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판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그대의 꿈을 버리지 마라. 꿈이 사라지면 여전히 그대가 생존하고 있을 지라도 그대는 더 이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인용하며, "꿈꾸는 자는 많은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우울했던 마음 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만 아픈 마음이 치유된다"고 하는 그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을 앓을 수 있고 신앙의 거장들도 우울증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끌어 안고만 있으면 더 커지고 깊어질 뿐이다. 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분은 나를 고치신다"며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울증을 거두어 가지고 세미



최명일 | 넥서스CROSS | 252쪽

한 음성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감싸주셨다. 엘리야의 마음 속에 있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순간이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

저자 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행복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령이 가난한 자> 등을 저술했다. 오유진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터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마감)/3월 11일(신청가능)/4월 1일(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하시면 단체 특별 할인됩니다
성지연구소에서 제공한 성지순례 지도 & 자료집을 드립니다

합치면 힘을 받습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하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협력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9-12)”

힘이 합쳐지면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너지효과라 합니다.

예를 들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1000파운드라면 산술적으

로 말 두 마리는 2000파운드를 끌어 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습니다. 시너지효과는 힘이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비행기로 씨를 뿌려야 할만큼 큰 말 농장의 주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가 이웃집 파티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만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혼자 놀다가 그만 무성하게 자란 밀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밀밭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 그 아이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 다. 밤새도록 밀밭 속을 헤매다가 이 어린이는 공포에 질린 채 밀밭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부모는 며칠동안 아들을 찾을 수 없자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동

원해 손에 손을 잡고 밀밭을 훑어가며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어린아이가 밭고랑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손에 손을 잡을 것을.”

일상사에서도 손에 손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하물며 교회가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힘을 합칠 때 후회하지 않게 되고,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원리는 다 알지만 정작 힘을 합치는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협력의 원리’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거라지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몇 분 안되는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각종 물품들을 집 거라지 앞에 주욱 늘어놓고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거라지 세일 전에는 반신반의하지만 막상 결과는 기대 이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더니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만들어졌던 것을 목양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합쳐지고 뭉쳐져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면 교회의 저력과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됩니다.

무엇이든 합치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이도 수북히 쌓아놓고 찢으려 하면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부러지는 나뭇가지도 다발로 묶어놓고 부러뜨리려 하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는 실도 타래를 만들어 끊어보려

증인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무관하다며 그 파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자들이나, 문자마살인극 같이 사람을 죽이는 댓글들을 쓰는 무기명의 비겁자들은 말세의 극명한 현상이다.

복음증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세증후군을 치료하는 길이고, 증인들은 거짓을 밝히는 심판자들이다.

과장과 거짓, 그리고 책임없이 돌아다니는 말, 말, 말.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뿐이라. 진리를 믿고, 또 그 진리를 책임있게 전할 수 있는 증인들만이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 장치이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자는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의 증거이다. 즉 ‘무책임한 비판’과 ‘비겁한 익명성’이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증인들만이 진실이 상실된 세상에 진리의 소망을 던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나?”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실소하지만, 정작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도 키재기의 유치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 기한다 해도 키재기에는 영적 유치함이 담겨 있다.

그 유치한 키재기는 거짓말과 과장, 혹은 남을 깎아 내리면서 자기의 키를 상대적으로 돋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며 무책임한 비판을 술취한 사람의 토악질처럼 쏟아내지만 정작 자기가 한 말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측성 기사를 써 놓고, 사실과

구약에 계신 예수님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에 이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셨음을 알게 된다면 그리 기이한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존재하시는 예수님, 즉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선재(先在, pre-existing)하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떠도는 아브라함 부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 오는 어느 날, 누군지 정체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맞이하여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여호와이시며,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의 여호와라는 한 분이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분 중의 하나로서 여호와로 표시된 분은 바로 선재하시던 예수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분이 선재하시던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세는 이 방문객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소명을 주시기 위해,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웃음을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

왜 삼등석만 타냐구요



손기성 목사
워싱턴 DC 은혜장로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질서가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리에 앉을 때에도 가운데 자리가 상석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두 명 이상이 걸으면 뒷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지식이 발달한 동물 집단일수록 자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대한 집착에 주님은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말석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르침이 이상으로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여행을 할 때 늘 기차의 삼등석을 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삼등석만 타십니까?”라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등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명예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리보다는 자신을 낮추려는 삶의 자세가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예수 결혼설은 영지주의 문서에 근거한 왜곡

머리말

지난 주 일간신문들은 하버드 신학부 교수 캐런 킹(58)이 국제학회에서 예수가 직접 “나의 아내”라고 언급한 4세기 이집트 콥트어 파피루스 조각을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서 “예수에게 부인이 있었다”라는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여 미국 교계를 뜨겁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는 독신이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다시 오신다’는 성경적 정통 기독교 가르침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적 견해로, 이미 지난 10여년 전 이래 몇 차례 영지주의 종교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역사적 예수 왜곡사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I. 역사적 예수에 대한 영지주의적 왜곡 사례

1. 예수 신화론

1999년 영국의 종교학자 디모시 프리크(Timothy Freke)와 피터 갠디(Peter Gandy)에 의해 출판된 [예수는 신화다](The Jesus Mysteries)란 논쟁적인 책이 2002년 9월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어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 책에 의하면 “원래적 예수(Original Jesus)는 ‘이방 신’(a Pagan God)이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서기 3세기의 부적 그림을 제시하면서,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이교도 신인(神人)인 오시리스-디오니소스(Osiris-Dioysus)였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결론에 의하면 “기독교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다른 이름에 의한 이방(異邦)종교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역사적 메시아의 전기가 아니라 고대 지중해 지역에 수세기 동안 퍼져 있었던 신인(神人) 오시리스-디오니소스(God-man Osiris-Dioysus) 이방신화를 유대교적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본다. 프리크와 갠디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야기를 역사가 아니라 우화(寓話, allegory)로 이해했고, 심지어 예수를 이방 신인(神人)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4세기와 5세기에 로마교회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박멸되었다. 그 후로 공적인 왜곡선전에 의하여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방(異邦)종교로 개종한 위험한 배교자들로 간주되었다. 프리크와 갠디는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본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프리크와 갠디는 유대인 역사가, 요셉푸스(Josephus)에 의한 예수의 언급은 후대의 위조(forgeries)이며, 역사적 예수의 실존에 관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은 3-4세기에 나타난 영지주의 문서인 나그 함마디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 영지주의 문서는 1

세기에 작성된 사도들의 서신들과 복음서보다 훨씬 후대의 것들이다.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시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프리크와 갠디의 예수상은 철저한 영지주의적 기독교 시각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있다. 이미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터툴리안(Tertullian), 이레네우스(Irenaeus) 등은 당시에 문제로 부상한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의 유사성이라 “사단적인 모방술”(diabolical mimicry)의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2. 다빈치 코드의 예수론

2003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덴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역시 나그 함마디 문서의 영지주의적 가설 위에 설계됐다. 『다빈치 코드』의 내용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프랑스로 망명하였으며, 그 후손이 메로빙거 가문에 흡수되었다. 메로빙거 왕조는 예수의 후손을 비밀리에 보호하기 위해 시온 수도회라는 결사 단체를 만들었고, 이 시온 수도회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들이 수장을 맡아 왔다”로 요약된다. 『다빈치 코드』는 기독교 역사의 진로에 있어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죄된 아리우스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아리우스에 의해 주도된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으나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빈치 코드』는 아리우스를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에 대한 대표자로서 두둔하고 있다. 니케아 회의의 아리우스를 두둔하면서 『다빈치 코드』는 “역사에 있어서 그때까지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유한한 선지자, 위대한 능력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 인간(a man)으로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4복음 그리고 사해사본은 물론이고 고대 문헌 어디에도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전혀 exist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덴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1982년에 나온 책 「성혈, 성배」(예수 후손에 관한 비밀 고문서를 조사하고 메로빙거 왕가와 성당기사단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는 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책의 저자들은 1953년 사기죄로 징역살이를 했던 프랑스인 피에르 플라타르가 제공한 문서들에 의존하고 있다(다빈치 코드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3. 콥트 문서의 예수 결혼설

예수가 “나의 아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4세기 콥트어(語) 문서의 파편



김영한목사
한국 기독교학술원장
승실대학교 명예교수

이 지난주(2012년 9월) 공개됐다. 초기 기독교 연구가인 캐런 킹은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 콥트학회에서 이 문서 파편을 공개했다. 고대 이집트 남부에서 쓰였던 콥트어 문장을 해독했더니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내’...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녀는 “정확한 입수 경로는 밝힐 수 없다”며 공개한 콥트어(이집트 토착어) 문서 파편에 스스로 ‘예수의 아내 복음(The Gospel of Jesus’ Wif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명함 크기의 이 문서의 문구들은 문장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형태다. “내게는 아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었다” 등 맥락 없는 단어가 나열된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언급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킹도 이 콥트어 파편에 대하여 “예수 사후 수백 년이 지나 만들어진 문서다. 예수가 결혼했다는 결정적 증거로는 볼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성경 외의 수많은 종교 문헌이 있지만, 예수가 혼인했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4세기 콥트어 문서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신약시대와 거리가 너무 멀어 신빙성을 얻기 어렵고, 문서 파편 하나로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II. 영지주의 문서의 이단성: 나그 함마디 문서

예수의 삶과 관련한 영지주의적 왜곡의 역사는 오래됐다.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라고 확정한 ‘도마행전’, 가롯 유다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였다는 ‘유다복음’, 깨달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도마복음’ 등이 그렇다. 이런 주장은 이슬라엘과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서 새 문서가 발견될 때마다 불거졌다. 그 바탕에는 예수 사후 이집트 등을 근거로 반했던 영지주의가 깔려 있다. 영지주의는 유대교, 기독교, 점성술, 그리스-이집트 철학·사상 등이 혼합된 일종의 이단 사상이다. 교리적으로 정통 기독교와는 큰 차이를 보여 3세기경 이후로는 사라졌다. 대부분의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는 3-4세기 정도에 쓰였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등 4대 복음서는 대개 1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쓰인 것들이며 기록의 연대로 봐도 복음서가 훨씬 신빙성이 있다.

1. 나그 함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문서

나그 함마디 문서(the Nag Hammadi library)는 대표적인 영지주의 문서다. 이 문서는 1945년 이집트 나일강 상류 나그 함마디(Nag Hammadi) 지역의 자발 알 타리프 절벽에서 발견되었다. 13개의 파피루스 묶음으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도마복음’을 비롯해 기독교에서 이단시해 온 영지주의 위경(僞經)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는 4세기의 이집트 상류에 있는 기독교 도서관에 속하는 13개의 파피루스본에 묶여 있는 52개의 콥틱(Coptic) 문서이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초기 희랍문서의 번역이며 원래의 언어는 예외없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나 1977년에는 콥트어(헬라어 알파벳으로 표현된 고대 이집트어)로 기록된 나그 함마디 문서 전체가 영역 출판돼 이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사해사본(쿠파란 문서), 미지 복음서 단편, 비밀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서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영지주의적 시각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라고 부른다. 영지주의 문서에 따르면 예수는 삼위일체의 성자가 아니라 신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영지주의 교사(현자)’라는 것이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사해사본이 예수의 선교를 매우 인간적인 용어로 서술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 예수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 말하나, 사해사본은 물론이고 고대 문헌 어디에도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 나오는 예수의 결혼설 등은 대부분 전설이나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영지주의 문서가 재구성하는 역사적 예수는 영지(靈知)의 지혜자로서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인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러므로 3세기의 교부들, 저스틴, 오리게네스, 이레네우스 등은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영지주의의 파멸을 정통 기독교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이미 초대교회가 정죄한 영지주의 문서로서 이단으로 간주되어 폐기된 문서이다.

2. 도마복음도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나온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나온 일부 서인 도마복음(Gospel of Thomas)도 예수의 어록만을 담고 있는 영지주의 복음서이다. 도마복음은 4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예수의 가르침(어록)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위 겨자씨의 비유 등의 일부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온다.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영지주의적으로 유

사적 예수를 왜곡하고 있다. 나그 함마디에서 함께 발견된 문서에는 영지주의 문서 52편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문서들이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도마복음처럼 4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면서도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영지적 시각으로 인한 영생”으로 왜곡한다면 그러한 문서들은 도움은 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것들은 초대교회 때 벌써 정죄를 받고 사라진 문서들이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문서는 초대교회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한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사해사본 문서, 미지 복음서 단편, 비밀 마가복음 등은 우리에게 외경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서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맺음말: 역사적 예수는 신화가 아닌 성육신한 말씀

요한일서에 사도요한은 1세기에 벌써 역사적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미혹의 영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요일4: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당시에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유사한 것으로 부상한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란 “사단적인 모방술”(diabolical mimicry)의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교부들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실재성을 강조하였다. 3-4세기에는 예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건 대중적 관심이 높아서 가짜 문서가 만들어졌다. 사단은 이러한 대중적 호기심을 이용하였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영지주의를 이단(heretics)으로 간주하였다. 사도 요한은 말씀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았고 손을 만져보았다고 역사적 예수의 가시성과 구체적인 실존을 강조하였다. 영지주의 학자들은 영지주의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약성서 및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가 그린 역사적 예수상을 영지주의적으로 왜곡하였다.

이런 캐런 킹이 발견한 “예수의 아내”를 시사하는 콥트어 단편도 영지주의 문서 가운데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학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FOOD & RECIPE

FOOD & RECIPE

뇨끼_Gnocchi 말이 그렇지 수제비이기야 하겠습니까?



- 계란 Egg 1개
- 넛맥 Nut Mac 파우더 필요량
- 소금 Salt 필요량
- 파마산 치즈 Parmesan 2큰술
- 올리브오일 Olive Oil 2큰술
- 버터 Butter 1큰술
- 프레쉬 세이지 Fresh Sage 필요량
- 흰후추 White Pepper 필요량

뇨끼(Gnocchi) 만들기

1.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감자를 껍질 채 넣는다. 15분 이상 삶아서 손으로 만졌을 때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꼭 삶는다. 감자를 삶는 때는 소금을 미리 넣지 않고 감자를 넣으면서 동시에 소금을 넣어 줘야 한다.
2. 뜨거운 감자의 껍질을 벗긴 후 식기 전에 중간 사이즈 망에 내린다.
3. 체에 내린 감자에 분량의 밀가루, 계란, 소금, 넛맥, 흰후추를 혼합하여 가볍게 섞는다.
4. 반죽된 뇨끼(Gnocchi)의 상태를 보고 조금 질면 밀가루를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춘다.
5. 사진과 같이 포크를 이용하여 뇨끼를 완성한다.
6. 완성된 뇨끼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
7. 뇨끼는 어느 정도 익으면 동동 떠오르므로 떠오른 뇨끼를 체로 건져 물기를 제거한다.
8. 달구어진 팬에 분량의 세이지, 버터, 올리브 오일을 넣고 향을 낸다.
9.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미리 삶아 놓았던 뇨끼를 넣고 잘 섞어서 예쁜 접시에 담아서 완성한다.

파스타의 한 종류로 감자를 주재료로 반죽해 만드는 뇨끼(Gnocchi).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가정식으로 툭툭 떼어 익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제비와도 닮았다. 다른 파스타에 비해 반죽이 까다롭지 않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또한 주방의 상비군으로 준비해 두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으로 감자만한 것이 없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값도 저렴하니 마음껏 활용해 먹기에 그만. 매일 반찬으로도, 손님 초대 메뉴로도 쉽고 만만한 감자 요리를 배워본다.

맛있는 재료

- 감자 Potato 1파운드
- 밀가루 Flour 반컵



담배고 후자는 감자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다.

감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것은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감자를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탄수화물 식품이면서 채소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자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 비교적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유제품, 육류, 어류 등과 잘 조화를 이루어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한다. 감자 속의 철분 함유량 역시 밥보다 많다.

무엇보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중간 크기의 감자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킬 정도다. 게다가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은 전분 입자로 싸여 있어 열에 강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자에는 수용성 섬유질

인 펙틴이 함유돼 있어 변비나 설사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순환기 질환의 예방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아무리 몸에 좋은 감자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분식품이니 살이 찐다고 염려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감자는 수분함량이 높아 의외로 저칼로리 식품에 해당한다. 100g 당 생감자의 경우 77칼로리.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고.

단, 조리법에는 주의할 것. 감자를 섭취할 때 튀긴 감자는 칼로리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찐 감자와 비교해 볼 때 같은 양의 감자 찹은 칼로리가 7배나 높다. 감자튀김은 2배 높은 칼로리를 가진다.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건 어쩌면 감자 때문이 아니라, 튀길 때 스며든 기름 때문일 터.

오늘은 맛있는 뇨끼로 건강과 맛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새콤한 레몬 드레싱으로 맛을 더했다



이온을 배설시키는 칼레이트 효과가 있어 디톡스 식품으로도 좋다.

아스파라거스의 뾰족한 머리 부분에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눈 영양제 성분으로 인기있는 루테인은 항산화 기능 외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동맥경화와 고혈압, 암, 노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채소는 엽산,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과 정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남성들에게도 좋은 식재료 알려져 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숙취해소 음료에 쓰이는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3~4배 들어 있다.

맛있는 재료

-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1/4 파운드
- 그린 빈 Green Bean 1/4 파운드
- 레드 어니언 Red Onion 2개
- 토마토 Tomato 4개
- 소금과 후추 Salt & Pepper 필요량

드레싱 만들기

준비할 재료: 레몬 제스트(Lemon Zest) 1/2작은술, 마늘 1작은술, 레몬 주스 2큰술, 올리브 오일 2큰술, 파슬리 1/4컵, 프레시 바질(Fresh Basil) 1/4컵, 파마산 치즈 2큰술

1. 레몬은 솔을 이용해 껍질이 벗겨진 후 제스트(Zest)해 놓는다.

제스트(Zest)는 음식의 향미를 내기 위해 레몬이나 오렌지의 바깥 쪽 표피를 사진과 같이 얇게 벗겨 내는 것을 말한다.

2. 분량의 마늘은 다져 놓고 프레시 바질은



깨끗이 씻어 크게 채를 썰어 놓는다. 3. 커다란 믹싱 볼에 준비한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섞어 레몬 드레싱을 완성한다.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만들기

1. 아스파라거스는 깨끗이 씻는다. 2. 아스파라거스는 줄기 식물이라 밀등은 잘라내고 껍질을 얇게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3. 끓는 물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다듬은 아스파라거스와 그린 빈을 데쳐 내고 물기를 제거한다.

4. 분량의 토마토와 레드 어니언도 잘 씻어 어니언은 채를 썰고 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5. 커다란 믹싱볼에 준비한 아스파라거스, 레드 어니언을 넣고 드레싱을 넣어 잘 섞은 후 토마토는 마지막으로 넣어 부서지지 않도록 섞은 후 완성한다.

아스파라거스 구입 요령과 보관 노하우

아스파라거스는 크기와 상관없이 색깔이 밝고 줄기가 단단하며 봉오리 부분이 잘 단 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아스파라거스는 수확된 순간부터 점점 당도를 잃기 때문에 구입 후 최대한 빨리 요리를 하는 게 좋다. 구입 후 며칠간 냉장 보관을 하려면, 꽃꽂이 하듯 관리를 해주면 된다. 긴 유리컵에 담고 물을 약간 담아둔 뒤, 줄기 하단을 매일 조금씩 잘라내어 줄기를 최대한 싱싱하게 보존해 주는 방법이다.

아스파라거스를 유리컵에 담은 채 냉장고에 보관하고, 꽃봉오리 부분을 지퍼백으로 덮어주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

▷도움말 : 요리연구가 미셸 조
▷쿠킹 클래스 문의 : (562) 896-3090



특이민족 방포경식의 여행이야기



▶여행을 즐겨라

지난 1984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어디로 여행을 가야 좋을지, 어떻게 여행해야 즐거운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여행보다 그 이상을 얻는 여행을 제안하려 노력하는데 잊지 않고 대화의 말미에 "여행을 즐기세요. 마지막 여행인 것처럼"이란 말을 덧붙입니다.

"에텐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등 단 세편의 영화만으로 혜성 같은 짧은 생애를 영원으로 이어간 배우 제임스 딘(James Byron Dean)은 평소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morrow)"란 말을 좌우명으로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행도 그러합니다. 여행을 꿈꾸고 오늘 여행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자 하는 마음가짐을 품을 때 무심코 흘러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가슴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행을 떠나며 삶과 죽음을 떠올리는 비장함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은 꿈꿀 때 좋고 내 삶으로 만들 때 즐거운 것입니다.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즐기십시오."

▶여행을 떠나라

'가슴 떨릴 때 떠나고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 생각만해도 가슴 떨리게 만드는 단어죠?

인류에게 여행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더 나은 먹거리, 더 나은 잡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했을 선사시대에 이미 여행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한 그 이동은 삶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와 비교조차 힘들만큼 풍족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행은 여전히 삶을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존재를 위한 이동보다 치

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있고 지내야만 하는 '여유', '낭만', '휴식' 그리고 '행복', 우리는 여행을 통해 그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신발끈은 질끈 묶고 가슴 떨리는 여행을 떠나 봅시다.

▶여행을 배워라

여행! 알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여행을 다녀왔어도 놀다 온 것만 기억하지 정작 얻어야 할 정보와 경험은 축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준비한 자만이 무심코 흘러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지난 여름 고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여행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는 지인과의 대화 중(28%)에 여행을 결심하고 책(28%)과 포탈사이트(36%)를 통해 정

보를 수집하며 여행 준비기간은 2주에서 한달 사이(48%), 가장 큰 걱정거리는 비용(63%)이라고 답했습니다.

알찬 여행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여행결심을 위해서도 책과 포탈 사이트를 가까이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발품 판 만큼 눈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지식은 책을 통해 얻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는 포탈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경험자들의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는 2-3개월 전에 해야 가장 큰 걱정거리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들의 조기 예약 할인(early bird)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사 상품 역시 조기 예약시 할인되는 패키지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일이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핵심 지역을 낮은 비용으로 두루 둘러볼 수 있다는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정보를 모으고 배우십시오.

캘리포니아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여행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뤄보면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야자수가 늘어진 산타모니카 해변,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는 오렌지카운티, 장엄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인랜드/엠펙이어, 미국 최고의 동물원을 가진 샌디에고 등이 속한 'LA & 인근 지역', 데스밸리/쥬슈아 국립공원, 모하비 자연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신비의 땅 '데저트 지역', 요세미티, 세코야/킹스캐넌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며 미국 전역 최고봉인 해발 1만4천5백 피트의 휘트니 산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최정상봉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시에라 고원 지역',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프레즈노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감도는 명품도시들이 즐비한 '센트럴 밸리 & 코스트 지역', 전미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해안선과 침엽수 숲, 깊은 호수가 있어 스포츠 마니아가 마음껏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노스코스트 & 사스타 지역',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멜트인(MELT-IN)된 변화무쌍한 도심, 세계 최고 양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 베이 지역'이다.



1. LA & 인근지역

여행을 떠나는 것 못지 않게 여행 온 이들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뉴욕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보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 방문객 맞이는 일상다반사이지만, 어김없이 받게 되는 '로스앤젤레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꼭 봐야 하는 곳은 어디죠?'란 질문에 조금은 답을 주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훌륭한 '여행맞이' (투어 가이드)가 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는 애칭을 가진 로스앤젤레스는 주변의 패서디나, 컬버시티, 잉글우드, 산타모니카, 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해 인구 700만이 넘는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뉴욕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시가지는 북부의 샌 게이브리얼 산맥 남쪽 사면에서 서부와 남부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고층 빌딩이 뻗뻗하게 들어선 다운타운, 비벌리 힐스의 고급스러운 대저택과 각각의 뿌리의 색깔이 드러나는 한인타

운, 차이나타운 등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캘리포니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와 감성이 넘치는 거리, 낭만과 여유가 넘치는 해변과 교과서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유명 작품들이 모여있는 미술관들, 이것들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도시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인 것이다.

아메리칸 원주민 촌락이 산재하던 이 지역은 1542년 탐험가 '후안 로드리게스 가브리요'가 도착하면서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781년에 에스파냐인 44명이 자리잡은 '올베라 스트리트' 탄생하게 되면서 비로서 로스앤젤레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769년 스페인의 군인 '가스파르 데 포르톨라'와 성직자 '후안 크레스피'가 '우리의 숙녀 포르시온쿨라의 천사의 여왕'(El pueblo de Nuestra Senola la Reina de Los Angeles de Porciuncula)이란 긴 이름으로 이 도시를 불렀는데 이는 현재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가 이 도시를 한동안 지배하였으나 1846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발발한 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1848년 미국령이 되었다.

남태평양 철도 완공(1876년), 석유분

출(1891년), 파나마운하 개통 및 샌 페드로만 축항(1914년)은 20세기 도시의 급속한 발전 기반이 되었으며,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의 발전, 감귤류 재배와 그 가공업의 발달, 교통로 확충에 의한 관광의 발달 등은 도시 변영의 기반이 되어 지금의 정밀기계, 섬유, 화학, 전자산업 및 우주항공산업의 중요한 경제적 지주인 로스앤젤레스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을 비롯한 약 10개의 주요 대학 및 자연사 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이 있고, 뮤직센터를 본거지로 하는 로스앤젤레스필하모닉관현악단이 있는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이기도 하다.

태평양 건너에서의 인구유입지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중국 등 동양계 이민들이 많고, 과거 스페인, 멕시코령이었기에 히스패닉계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는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우정의 종(鐘)'을 기증한 바 있다.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

위치: 브렌우드
석유왕 폴 게티의 컬렉션을 공개하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고흐의 '아이리스'

를 비롯한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이 만발한 센트럴가든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관련 사이트 : <http://www.getty.edu/>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Hollywood)

위치: 유니버설 시티
미국 영화산업의 메카인 로스앤젤레스 특유의 테마파크. "우주전쟁"과 "사이코" 등 실물 영화 세트를 돌아볼 수 있는 테마파크이다.

관련 사이트 : <http://www.universalstudioshollywoo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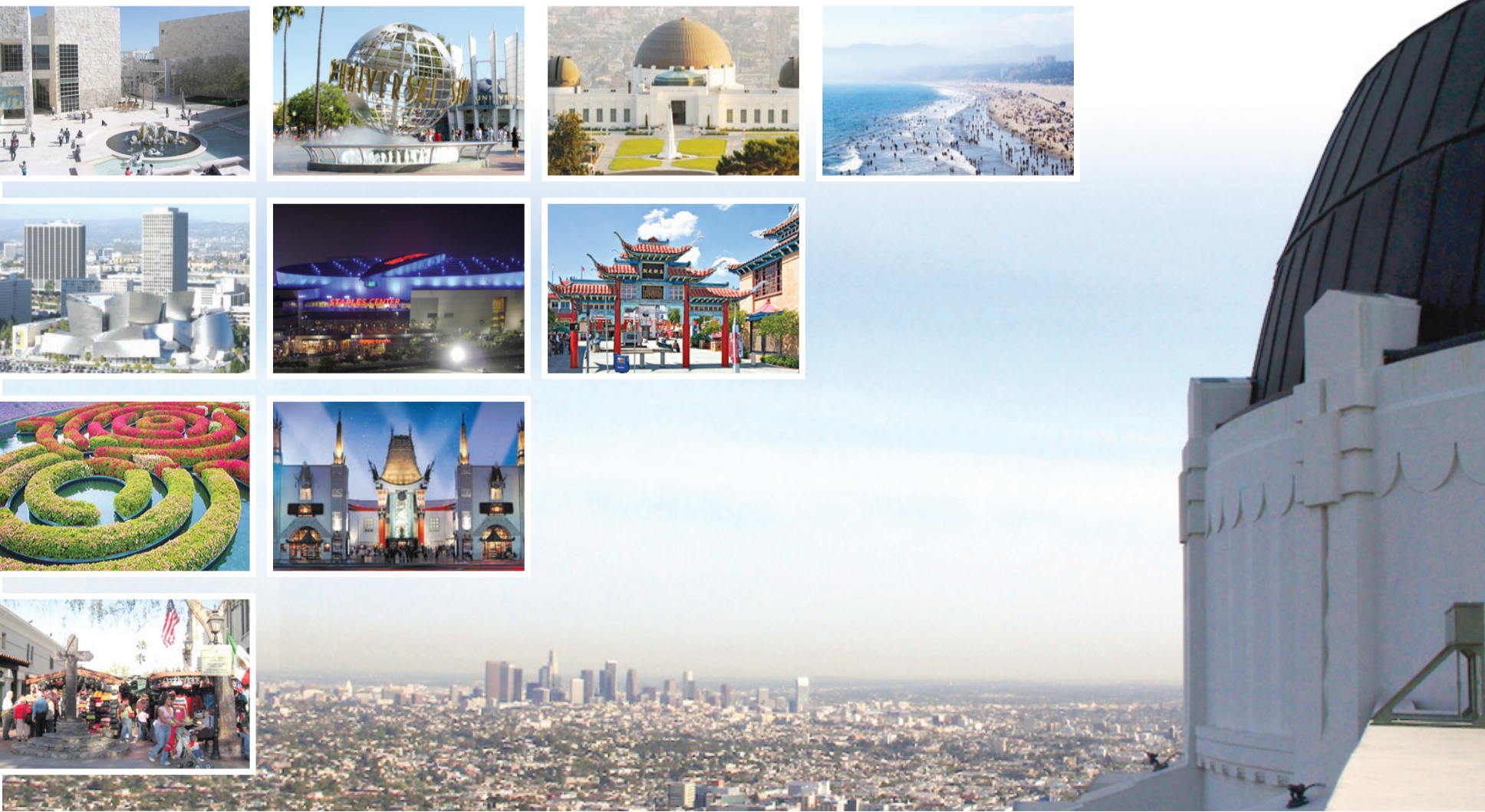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

위치: 로스앤젤레스

전미 최대의 도시형 공원인 그리피스 공원 중턱에 있는 천문대이다. 유명한 'HOLLYWOOD' 사인판과 로스앤젤레스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관련 사이트 : <http://www.griffithobs.org/>

〈자료 제공 : **US이웃여행**〉
〈다음호에 계속〉



LIFE IS TRAVEL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생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8백만 음이온-양극이온 발생

출몰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제작, 컴퓨터 수리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음미가 없으신 음성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작문의 213.814.134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조용기 목사 성명서 발표 WCC 반대 및 한기총 지지

“한국교회 전통 중심 잡기 위해” 신앙관 공개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지체에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 명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1. 기독교 정통의 보수신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온 영·미 선교사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선배들의 보수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 2.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 3. 종북좌파 공산주의를 배척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적화통일 후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살상하고 수천의 교회를 파괴하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간첩과 공작과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배척합니다.
- 4. 이단종파와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에 퍼져있는 이단세력과 미신을 과감히 정리해야 기독교가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지지합니다.**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 본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 한기총(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2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전국구국기대회 대표, 강남금식기독원-강남교회 원장목사 김성광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신앙관을 일간지 광고로 게재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인 조용기 목사가 한기총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조 목사는 이 성명에서 그동안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온 WCC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는 25일 주요 일간지 광고로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지체에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 명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한기총에 대해서도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 본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 한기총(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성명은 조용기 목사와 김성광 목사(강남교회 담임)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지체에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 명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기독교 정통의 보수신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온 영·미 선교사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선배



조용기 목사들의 보수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종북좌파 공산주의를 배척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적화통일을 하고자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살상하고 수천의 교회를 파괴하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간첩들과 종북좌파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배척합니다.

4. 이단종파와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에 퍼져있는 이단세력과 미신을 과감히 정리해야 기독교가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지지합니다.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 본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 한기총(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전국구국기대회 대표, 강남금식기독원-강남교회 원장목사 김성광

기감, 한국 교단 최초로 세습방지법 통과

감리교가 국내 교단들 중 최초로 일명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감리교 제29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장정개정위는)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장정개정위는 오후 임시 입법의회가 속회되자 '개체교회 담임자'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목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찬성한 한 총대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 곧 시대정신이 있다. 감리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교회 사정이나 기타 소소한 것들은 차후 보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담임목사의 아들 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큰 교회들 문제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 애까지 불평을 줘선 안 된다. 농어촌교회들에선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목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 여부를 총대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기로 했다. 투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더 많아 일명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김진영 기자

증거없는 한기총 이단자금 유입설 성총회서 잇따라 유포

예상 합선 뿐 아니라 예상 통합에서도 성총회(聖總會) 도중 근거 없는 '한기총 이단자금 유입설'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측 총대인 유무한 목사(서울시노회)는 20일 총회석상에서 한기총에 대해 "통일교에 연루된 모 인사의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강력한 세력으로 확산됐다"며 "점잖고 장자교단인 우리 임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없었다. 한기총을 탈퇴할 수밖에 없고, 세력 확산을 막을 길은 물리적 뿐인데 총대님들이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유무한 목사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칠성교회 담임이며, 최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가입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회계다.

하지만 유무한 목사도 자신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 목사는 24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일교 연루자가 한기총에 재정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듣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증거 확인은 하지 않았는가,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발언이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이름을 안 밝혔는데..."라고 했다. "재정 지원을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기총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그런 설(說)이 있으니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시종일관 자신이 한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기자는 "총회석상에서는 설이 있다고

하지 않고 단정적 사실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들은 이야기일 뿐 증거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유무한 목사는 대답을 회피하다가 기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다른 지인을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뒤, 자신이 교계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들을 언급하면서 은근한 압박을 하기도 했다.

한 통합측 총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예, 아니오를 확실히 해야 할 목사와 장로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통합측 인사는 "성총회에서 함부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른 이들을 음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총대들이 자신을 마치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예상 합선의 부회록서기인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역시 총회석상에서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진 이단의 돈이 모 목사를 통해 한기총에 유입됐다는 증거가 국가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발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이 발언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공교롭게도 통합과 합선은 모두 각각 유 목사와 강 목사의 발언 후 논의를 거쳐 한기총을 탈퇴했다. 류재광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J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로 가족과 무제한 행복을 통화하세요!

**집전화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2대 적용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무제한*

행사기간 : 2012년 9월 30일 까지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24.99 /월

**지금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무료 부가서비스

iTalkBB 아이토크엠
TALK 나왔다 iTALK!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번호 없이
간편, 편리하게 국제전화를

마이코리아넘버 My Korea Number**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번호를

[30%] [디지털 시대 우리전환]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1개월 무료 무제한 아이토크글로벌/iTalk: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12개월 계약 플랜에 가입한 신규고객에 한하며, 1개월 무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적용됩니다. 무제한 아이토크글로벌은 13개월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 매월 500분으로 자동변환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69.99의 위반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신 및 수신 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국제전화 사용 시 사용액이 없을 경우, 요금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영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정구시 대신 안건하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0대(7에이커)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리무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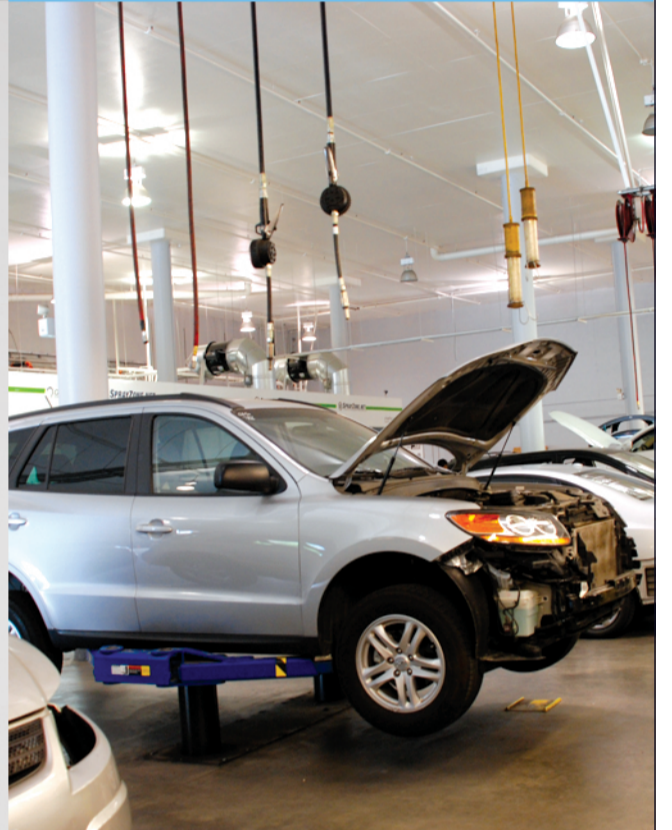
에쿠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세계에서
단 한대뿐인 에쿠스 리무진이
모시려합니다.



SUPER STORE

“품격있는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렌탈 카



평생
무료 세차

CAR WASH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9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9월 1일~30일)



\$579 + TAX(STK.058106)



2013 EQUUS SIGNATUR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60,150 / Residual: \$27,068 / T.D.O: \$5,999
No Security Deposit /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012 GENESIS



\$255 + TAX(STK.207604)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35,260 Residual: \$16,572
T.D.O: \$4,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119 + TAX(STK.465125)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20,970 Residual: \$10,066
T.D.O: \$3,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O.A.C)

9월 한달간 무이자 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타나 하이브리드에 한함.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정
626.513.4006



Sales 매튜 정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